

장소 :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



▲ 라디오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한 정의선 웰컴 국장(좌), 임인규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회장, 남성호 교보생명 팀장(우)

주최 : 한국광고주협회
일시 : 2011. 3. 31(목)
장소 :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



▲ 인터넷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한 권혁민 삼성전자 부장(좌), 김재휘 중앙대 교수, 손성연 제일기획 프로(우)

▶ 옥외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한 임희석 대림산업 팀장(좌), 김재휘 중앙대 교수, 김경태 TBWA KOREA 팀장(우)



▶ 잡지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한 이가기 HS애드 국장(좌), 김상훈 한국광고학회 회장, 박승용 LS전선 대리(우)



이번 '제19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'에는 총 399편의 광고가 출품되었다.

1차 예심에서는 광고관련 교수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광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소비자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던 광고, 모방광고, 비방광고,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제 광고를 우선적으로 가려내어 총 333점을 선정했다.

2차 투표인단 투표심사에서는 서울YMCA 매스컴 모니터링 요원과 대학생 광고연합동아리인 애드컬리지, 애드파워, 애드플레이, 애드피아 소속 대학생 등 100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, 총 150점이 선정되었다.

3차 본심사에서는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, 김민정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학회장, 김재휘 前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회장,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, 여정성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등 소비자학회 회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장시간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매체별, 업종별 총 31점을 선정하고,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4점과, 이 4점 중에서 다시 영예의 대상 2점을 결정했다.

